

사회 >> 3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 끝은 어디인가?

기획 >> 4면
 온오프라인으로 학교 알차게 이용하기

현장르포 >> 5면
 성큼 다가온 기후 위기, 노력해요 탄소중립

제563호
 2022년 9월 16일(금)

“문화로 어촌을 도와요!”, 색다른 활동을 원한다면 문화어할 어때?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2회 문화어할'이 전곡항에서 실시됐다. 작년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에 위치한 '국화도'에서 진행했던 '제1회 문화어할'에 이어 올해는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에 위치한 '전곡항'을 방문했다.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하 청문단) 운영위원장인 서경대 광고홍보콘텐츠학과 방미영 교수는 2013년에 청문단을 창단하며 '청년과 함께 떠나는 문화생활'을 진행했는데 이를 어촌으로 확대해보자는 생각에 지난해 문화어할을 진행했다. 청문단에서는 인구 고령화 및 과소화되는 어촌 지역에 청년세대들과 어업인들과의 교감을 통해 어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로 어촌을 돕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문단에서 주관한 문화어할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함께했으며 총 13명(서경대 8명, 동아방송예술대 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또한 각 대학의 지도 교수와 더불어 드론 촬영 감독 및 전문가가 동행했다.

이번 문화어할은 첫 시도였던 제1회 문화어할에서 큰 호응을 얻어 일정이 하루 더 늘어났다. 나흘에 걸쳐 진행된 제2회 문화어할은 크게 네 가지로 ▲전곡항 투어 ▲어촌 일손 돕기 및 체험관광 ▲어촌 관광 프로그램 제안서 및 홍보영상 제작 ▲프로그램 기획안 발표 및 홍보영상 시사회로 구성됐다.

첫날 전곡항 어촌체험마을센터에서 상견례와 전곡항의 관광 현황 및 홍보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한경배 어촌계장을 필두로 한 면담에서는 전곡항에 대해 알아가는 시

간을 보았다. 어촌계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전곡항에 찾아와줘서 생기가 넘친다"며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담아낸 전곡항 관광 프로그램과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마지막 날 학생들은 그동안 전곡항을 돌아보며 느낀 점과 어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 기획안을 발표했다. 또한 요트들이 빼곡한 이국적인 풍경의 전곡항 마리나,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어망 정리, 유람선 탐승과 갯벌 체험하는 모습을 담아낸 전곡항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청문단 단원으로서 이번 문화어할에 참여한 서경대 하경림 학우(국비 20)는 "3박 4일 동안 우리 대학, 타 대학 학우들과 지내면서 서로 협동하며 영상을 제작한 경험이 특별했다"며 "항상 타지역에 놀러 갈 때 관광 명소에 가서 구경만 했는데 문화

어할을 통해 제안서를 제작하면서 관광지 개발과 특산물 제작에 많은 노력이 든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갯벌체험을 처음 해봐서 신선한 경험이었다며 또 문화어할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미영 교수는 "청문단 제2회 문화어할에 참여한 서경대와 동아방송예술대 학생들 모두 수고 많았다"며 "두 학교 학생들이 혼합된 팀으로 진행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좋은 결과물로 잘 응합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박수를 보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다시 문화어할에 참여하길 바라며 문화어할 성과물이 전곡항에 활용,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푸른 자연 속에서 오고 가는 정

서경대학교 재학생 50명, 농촌봉사활동 다녀와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2022년 하계방학 농촌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제50대 나은 총학생회가 주최한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이뤄졌다. 참여인원은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했으며,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수에 총학생회 측은 자체 면접과정을 통해 총 50명의 참여자를 확정했다.

첫 날인 18일에는 도착 후 안전교육 및 성예방교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했다.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총 6개의 조로 나뉘어 고추 따기, 잡초 뽑기, 옥수수 수확 등

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도왔으며, 환경미화 활동도 함께했다. 또한 오후에는 휴식 후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해 평소에는 접점이 없던 타 교의 학우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신인철 학우(산공 17)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다"며 "동시에 봉사를 통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시원 학우(컴공 16)는 "안녕하십니까. 제50대 나은 총학생회 정 학생회장 김시원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년 동안 단절됐던 농촌봉사활동을 올해는 학우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저희의 작은 노력이 농촌 주민분들께 보탬이 된 것 같아부

듯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학우분들과 같이 나아가는 더 나은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나은 총학생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배려하고 도와주며 경험한 농촌봉사활동이 학우분들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가 다소 해소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었던 행사였기에, 앞으로도 더 뜻 깊은 활동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중은 기자
 (20eun00@naver.com)

ZOOM UP



각도의 중요성

KS****님의 제보



서경대 사회봉사단, 길음종합사회복지관과 '몸보신 하는 날' 행사 가져



서경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사회봉사단은 지난 7월 23일 길음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다같이 몸보신 하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본 행사를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80가정에 해신탕 및 제철과일 선물세트가 전달됐다. 이번 행사에는 기존 사회봉사지원센터 봉사단원과 2차 단원 모집 공

고를 통해 새롭게 지원한 단원들까지 총 25명의 학생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오전 9시 길음 종합사회복지관에 모인 봉사자들은 수박, 전도복숭아, 거봉 등 제철과일을 손질할 준비를 하고, 해신탕 재료를 손질할 조로 나눠져 작업을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완성된 음식에 용기에 옮겨 담아 포장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홍삼과 유산균, 봉사자

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동봉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질 보양식 선물세트를 완성했다.

그렇게 길음1동, 길음2동, 둔암1동, 삼선동 등 어르신 80가정에 전달할 선물세트 포장이 모두 끝난 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 스톱어 곳에 배달이 진행됐다. 봉사자들은 주소지에 적힌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음식과 함께 더운 여름을 건강히 보내시라는 인삿말을 전했고, 어르신들 또한 환한 미소와 격려로 이들을 맞이하며 감사를 표했다. 배달을 마친 봉사자들은 복지관에 모여 다같이 점심 식사를 한 뒤 행사를 마쳤다.

서경대 사회봉사지원센터 단장 이운재(화공 18) 학우는 "이번 2차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해주신 사회봉사단 단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차 활동과 비교해 더 많은 관심을 받아 기쁘다"고 참여해 준 봉사단원들에 대한 감사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여름은 전에 비해 더 더웠다고 느꼈는데, 어르

신분들이 사회봉사단에서 만든 여름 보양식과 함께 남은 여름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봉사 소감을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단원 송민경(국비 21) 학우는 "무더운 여름에 기다리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며 "환하게 반겨주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께 오히려 더 감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따뜻한 웃음으로 맞아주셨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서경대 사회봉사지원센터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영은 기자
(0eunee@skuniv.ac.kr)

광고홍보콘텐츠학과, 날개 달린 교내외 수상 실적

2022년의 한 학기가 마무리되며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재학생들의 교내외 공모전 수상 실적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내 학과(부) 홍보영상 공모전 '어서와! 우리 학과는 처음이지?' 뿐만 아니라 교외의 '상쾌한 대학생 광고 공모전', '제43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

'어서와! 우리 학과는 처음이지?'는 자신의 학과(부)를 소개·홍보하는 내용을 담아 3분 안팎의 영상 제작하는 공모전이다. 해당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광고홍보콘텐츠학과 '청춘시대' 팀의 작품 <청춘을 광고하라>는 광고홍보콘텐츠학과와 특성화된 실무 위주의 교육이 학생들을 프로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학생들이 갈등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청춘을 바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쾌한 홍보가 주제인 '상쾌한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는 '서경대 팀이 스토리보드 부문 대상을, 이영은 학우가 스토리보드 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서경대' 팀은 '개운하다, 산뜻하다, 가뽀하다'를 주제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주인공의 주변에 빈 술병이 빼곡히 놓여 있는 반전을 통해 숙취 해소 효과를 재미있고 인상적이게 표현해냈다. 더불어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손석구의 방에 술병이 뿔뿔하게 가득 찬 레퍼런스가 터닝포인트가 되어 해당 장면을 오마주했다"며 아이디어의 계기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인재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제43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여러 과

제 브랜드 중 하나를 선택해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협업 부서와 제일 기획 디렉터들의 심사를 받는 공모전이다. 장민선 외 3인은 과제 브랜드 '헤이달라'를 선택해 작품 <헤어질뻔한 헤어달라>를 제작했다. '넌 차였어!' 라는 키가피, 차를 손가락으로 튕겨내는 키비주얼 등으로 '중고차와 쿨하게 이별하자'는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블로그 포스팅에서 "충실한 스토리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장르를 가리지 않고 넓은 분야의 공모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광고홍보콘텐츠학과 재학생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이다.

윤지예 수습기자
(jijesunny@skuniv.ac.kr)

헤어디자인학과 봉사단 '아르케', 2022 농촌재능나눔 봉사 활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2022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 선정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봉사단 '아르케'가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2022년 농촌재능나눔 이·미용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아르케는 헤어디자인학과 학과장 진용미 교수와 김선혜 교수, 김유정 교수 그리고 정현광(헤디 21) 대표 학우를 포함한 11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이번 봉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시행하는 '2022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서경대학교의 위상을 알렸다.

이들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마을 중 내1리, 내2리, 내3리, 외1리, 외2리, 외3리 등 총 14곳의 마을을 방문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기본적인 커트, 파마, 염색 시술뿐만 아니라 손·두

피 마사지, 네일아트 시술까지 진행하며 어르신들께 수준 높은 시술과 서비스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까지 선사했다.

학생들과 함께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헤어디자인학과 학과장 진용미 교수는 "함께한 교수진들과 아르케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봉사 정신에 늘 감사한 마음이 다"며 "아르케는 이·미용 서비스에 소외되는 이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사회주민들과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는 근사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아르케의 대표를 맡아 대외 연락을 담당하고 봉사단을 통솔한 정현광(헤디 21) 학우는 "연속된 일정에도 끝까지 웃음과 열정을 보여준 교수님들과 팀원들에게 감사드

리고 어르신들이 전해주시는 따뜻한 감사의 말씀이 피로회복제가 되었다"고 감사인사를 밝혔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재능과 사랑을 나누며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작은 재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다"는 봉사 후기를 전했다.

헤어디자인학과 봉사단 '아르케'는 2008년 결성 이후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받기 취약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속적으로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이다. 그리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의 사업에 꾸준히 선정되며 학교와 학과의 위상까지 드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봉사단 '아르케'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이다.

홍지완 기자
(skwdhks9751@skuniv.ac.kr)



서경대학교, 신산업 첨단학과 신설과 함께 미래형 교육방법 도입한다

서경대학교는 75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실용화, 다양화, 첨단화를 통해 실용교육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올해 서경대학교는 융합대학 내에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와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교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실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율혁신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체제 구축과 대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실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실용적 전공교육을 강화하고 사회통합형 특성과 모델을 고도화하며 산업수

요 맞춤형 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수요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성화 교육의 내용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고도화하고 취창업 연계형 산학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졸업생과 유대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사

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형 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 인프라 및 서비스를 혁신해 인력양성체제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교육체제를 고도화하고 미래사회 적용 교양교육체제를 혁신하는 일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설된 융합대학 내에 각각 20명의 정원인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와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는 다가오는 수시에 신입생을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자수 기자
(jeesu246@skuniv.ac.kr)

서경대, 학부제증명 무료 발급 서비스 오픈

지난 7월 13일 서경대학교가 학부제 증명발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경포탈 내 QUICK LINK에서 '서트피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증명발급 방법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오픈으

로 인해 서경포탈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법은 쉽고 간단하다. 첫번째로 서경포탈 '학부' 탭을 선택한 후 '증명 및 발급' 부분 중에서 '증명서발급'을 누른다. 이후 '재학증명서, 성

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입학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의 총 9건의 증명서 중 본인이 희망하는 증명서를 고른다. 마지막으로 신청부수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른 후 최종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새로운 서비스 오픈으로 과거 있었던 증명서 당 재학생은 500원, 졸업생은 1,000원의 발급 수수료 없이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비용 뿐 아니라 출력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PDF 파일 다운로드와 저장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학우들은 이번 서비스 오픈에 대해 "평상시 발급방법도 잘 알지 못해 발급하기 어려움을 느꼈는데 간편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고 "1주일 전에 유료로 발급한 후에 생겨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제증명발급은 포탈에서의 발급 서비스 뿐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정부 24시 FAX 민원 신청', '유당관 9층 무인발급기' 등의 방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최준서 기자
(cjunseo3214@naver.com)



한 눈에 보는 이슈

<p>경제</p> <p>금리인상 기초 장기화 가능성에 부동산·가계부채 부담 '비상등'</p>	<p>정치</p> <p>尹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32.6%·부정 64.6%</p>	<p>사회</p> <p>제14호 태풍 난파돌 발생... '강'급 태풍 다시 오나</p>	<p>문화</p> <p>'오징어 게임', 비영어 작품 최초로 美 에미상 수상</p>	<p>연예</p> <p>뷔-제니 사진 불법 해킹 의혹, 스타의 사생활은 어디로?</p>	<p>스포츠</p> <p>뜨거웠던 구장 열기 뒤로...프로야구 정규 시즌 종료</p>
--	--	---	---	---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는 이슈

지속적인 금리 인상, 그 끝은 어디인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5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2.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는데 이어 네 차례 연속 인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5~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 주택 매매심리 또한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엔 대부분 대출이 끼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이전 집을 매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매수하는 사람)' 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놓였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10월과 11월 총 두

차례 남아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물가가 정점에 달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기준금리 인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에게 금리 인상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들어봤다.

[시민 인터뷰]

- 면세업계 직장인 신민아(가명/30)

Q. 금리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생활에 기본 요소인 의식주에서 주를 해결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니 속상한 마음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주를 해결하지 못하니 미래를 계획하기가 힘들 상합니다. 출산과 결혼은 꿈에도 못 꿀 만큼 부담이 됩니다. 물가 상승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라니. 점점 좌절감이 커집니다.

Q. 앞으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니까?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네, 있습니다.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대출은 불가피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리인상 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기가 꺼려집니다. 결혼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Q.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 속, 정부에게 바라는 점 있으십니까?

우선 높은 금리 인상 폭을 적정선으로 인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풀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신조어가 하루빨리 사라지는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20%대 후반 정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0일 만에 지지율 28%로, 바로 전임 대통령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인 29%를 깼다. 한국갤럽은 16~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8%라고 밝혔다. 긍정평가는 국민의 힘 지지층 58%, 70대 이상 57%에서 가장 높았고 보수층과 60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는 '모름, 응답 거절'(22%)을 제외하면 '열심히 한다'(8%), '외교'(7%), '결단력, 추진력'(6%), '전반적으로 잘한다'(6%)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26%), '경험, 자질 부족 및 무능함'(11%), '소통 미흡'(7%), '독단적, 일관적'(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57%, 김영삼 83%, 김대중 62%, 노무현 40%, 박근혜 53%, 문재인 78%였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지지율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원인에는 뭐가 있을지 분석해 보자. 첫 번째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굳이 세금을 들여 시행해야 할 목적을 알지 못했다. 한국갤럽 3월 4주차 조사에서는 청와대 유지 53%, 용산으로 이전 36%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행했다.

두 번째는 기업 위주 노동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및 주 52

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 처벌 유연화 시도 등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반감을 샀다고 보여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 및 대기업 처벌 기준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다. 세 번째로는 친일 행보 논란이 있다. 대통령이 8월 15일에 진행한 광복절 경축사에 좌익 독립운동을 향한 독립운동 역사에서 배제했다는 논란이 생겼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지향만을 강조함으로써 광복절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또한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지만 광복절의 존재 이유인 가혹한 일제 식민지배는 물론 현재의 첨예한 과거사 현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대학생 인터뷰] - 경영학과 2학번 김수만(가명)

Q.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 정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례적이라며 계속 보도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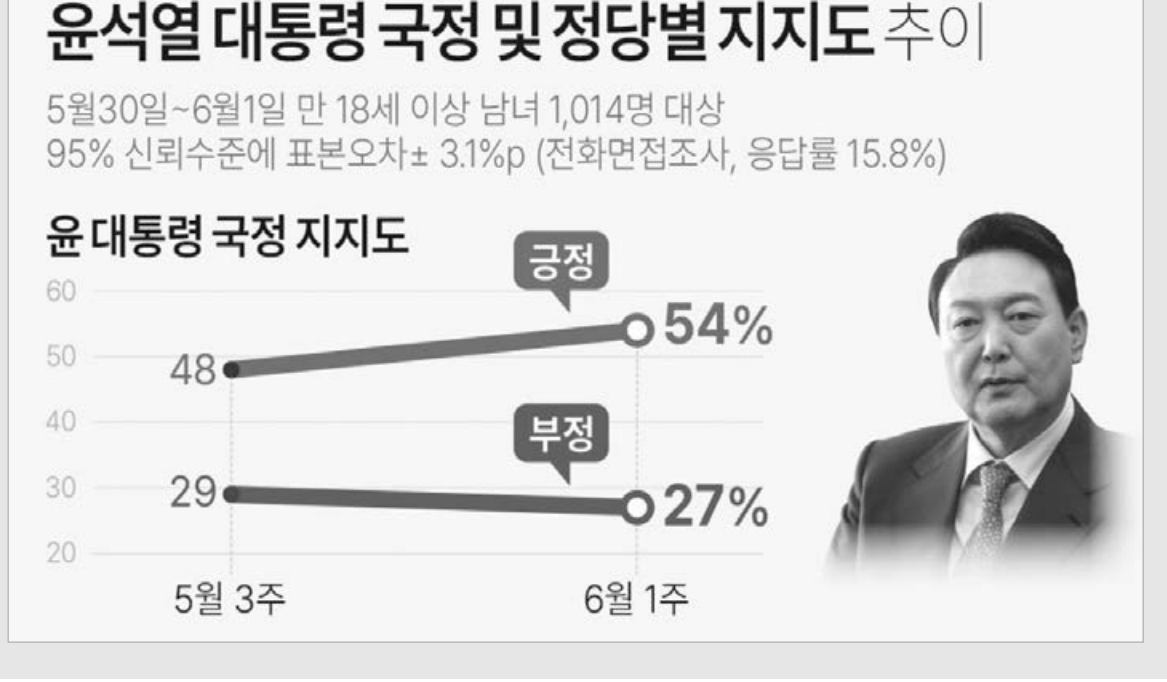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들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이행되도 불안정한 성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공약 또한 이행을 시 2024년으로 연기했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폐지 수순을 어떻게 밟겠다 하지

않고 지진부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과학방역은 사실상 방임과도 같아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폭등하는 것 또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민심과 민생을 우선으로 하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8월 2일 발표된 7월 물가 상승률에서는 무려 6.3%를 기록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친다면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지수 기자 (jeesu246@skuniv.ac.kr)



지난 8월 4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중립·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시행했는데, 첫 심판회의 주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였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난 2012년, 확산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비롯됐다. 이에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시행 중이다.

시행 후 10년이 지났지만, 지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차지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불을 지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이다.

현재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별도 물류창고를 통해 새벽 배송하고 있다. 반면 쿠팡과 마켓컬리 등 최근 급부상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자유로운데, 대형마트가 온라인 유통 시장 경쟁에서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대형마트 노조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과라고 주장하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상인연합회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폐지되면 전통시장 유입이 줄어들어 거머져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 노동자, 상인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금, 학우들의 생각은 어떻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찬성하는 학우들은 "동네 마트보다 물품들이 다양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오히려 대형마트 인근 상권이 침체해 내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된 현재 시장 구조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의무휴업 폐지 시 대기업 이익과 함께 대형마트 입점 자영업자, 납품 업자의 이익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반면, 반대하는 학우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것이며 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 휴업이 폐지될 경우 대형마트 근로자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 주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 속 대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의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563호 사회면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찬반을 놓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정승민 기자 (jsm0126@naver.com)
김지수 기자 (jeesu246@skuniv.ac.kr)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 장유리(가명) (아동 20)

저는 소비자의 편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커머스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구도로 인식하고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형마트를 찾은 30대 A씨는 "전통시장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대형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없을 때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많아 휴무일에도 제한없이 대형마트가 영업을 했으면 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매월 두 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에 구매를 포기하거나 같은 점포에서 다른 날 구매합니다. 결국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내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수혜자는 온라인 유통, 개인 대형 슈퍼마켓 등입니다. 의무휴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14년 한 해 동안 8조원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2017~2018년 신용카드 빅데이터 연구 결과에서도 규제의 실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주변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 주변 상권도 동반 침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합니다.

■ 김산들(가명) (소프트 19)

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대형마트에는 동네 마트에서 잘 볼 수 없는 물품들이 많이 구비돼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제품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따져 보면서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대형마트를 시간적 제약없이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데, 저는 온라인 쇼핑물류가 강세인 지금 시점에서 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값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현대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휴업할 때, 전통시장을 가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폐지한다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 폐지 시 이마트는 매출이 약 9600억, 영업이익이 14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 역시 매출은 3840억, 영업이익은 499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 농축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자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무휴업 폐지가 단순히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농축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합니다.

■ 성지훈(가명) (경영 18)

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인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쇠퇴하면 소비자 선택권도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서만 살 수 있는 생필품들이 있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도 또한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폐지돼 모두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생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찾은 40대 B씨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경우, 전통시장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등한 출발선은 아닐지라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가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이 대기업의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대기업이 대형마트로 인해 창출하는 이익의 손해가 크더라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휴업일에 이득을 보는 것은 비단 온라인 유통업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박채린(가명) (글비 21)

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형마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의무휴업에 쉬지 않는다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도한 노동은 대형마트 종사자의 주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대형마트의 주말 배송 제한은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기업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희생은 불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유통시장을 독점하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입지가 좁아져 어디에도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20년 넘게 패백 음식 전문점을 하는 강봉구(60)씨는 8월 5일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주변의 영세업자, 소규모 매장은 블랙홀처럼 씹 빨려 들어간다"며 "가격 할인을 많이 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영세업자는 운신의 폭이 좁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상인연합회에 소속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는 총 120여 곳이 있는데 모든 상인이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이 폐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온오프, 온오프라인으로 학교 알차게 이용하기

AI와 함께하는 취업 준비 - AI 자기소개서/화상 면접 솔루션



▲ AI 자기소개서/면접 솔루션 홈페이지 캡처

직무에 따른 추천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기소개서 완성되면 답러닝 기술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완성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흐름에 따른 직관적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 작성 수준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절 여부, 맞춤법 검사 서비스 등을 통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최종 점검 및 분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AI 자동완성, AI 평가/분석 소개, 맞춤 항목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기소개서 작성 진행 순서는 총 6가지 순서로 나뉜다. 제목을 작성한 후 기업을 선택하고 원하는 직무를 선택한다. 그 후 작성 항목 분류를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한 뒤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해당 단계를 클릭하면 이동 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자기소개서 작성이 완료됐다면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다. 서경대에선 AI 화상 면접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춰 기본면접, 상황 대처 면접, 심층 면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준별 집중 학습이 가능하게끔 했다. 기본면접에선 간단한 자기소개, 상황대처 면접에선 특정 상황을 설정한 후 Role-play(상황극) 면접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에선 직무 및 지원자 성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면접을 진행한다. AI 면접관은 응시자의 답변 내용을 듣고 응시자의 역량, 태도 등을 분석한다. 이후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지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점검이 가능하게끔 구성했다. AI 화상 면접 서비스에선 영어 회화/면접 서비스 또한 지원하고 있으니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외에도 실제 면접과 비슷한 환경으로 연습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경대 AI 자기소개서/면접 솔루션을 통해 취업 준비에 자신감을 키워보자.

서경대 학우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I 자기소개서 솔루션은 9만 건의 항목별 합격 자기소개서 샘플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첨삭 및 작성을 도와 주는 서비스다.

AI 자소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서경대학교 포털에 로그인해야 한다. 로그인 후 포털 메인 페이지에서 'AI 자소서/면접' 솔루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본 솔루션은 크게 '자기소개서 작성', 'AI 평가/분석', '첨삭'까지 세 단계로 분류된다. AI 자기소개서 솔루션 서비스에선 30여 개의 주제별로 각각 레이아웃을 제시한다. 즉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 진로·심리상담센터

서경대학교 유담관 L층 CLC존에 위치한 진로·심리상담센터. 이곳은 재학생들이 보다 활기찬 대학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 한 사람의 인간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다.

현재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상담과 다양한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일대일 만남으로 이뤄지는 개인상담은 물론 다문화/장애인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우들을 위해 진로·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는 익명 온라인상담 게시판도 활성화돼 있다.

우선 개인상담은 신청 후 접수면접 일시 확정, 접수면접, 상담자 배정, 개인상담(주 1회, 50분)의 절차로 이뤄진다. 개인상담 시에는 대인관계,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전공 선택과 졸업 후 진로문제, 성 및 이성문제, 행동 및 습관의 문제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는 ▲사이코드라마를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게슈탈트 도구활용 자기성장 프로그램 ▲커플관계 증진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모래놀이 치료 활용 자기성장 프로그램 ▲진로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나 어려움을 소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탐색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게시판 상담은 전문상담사가 댓글을 통해 답변을 주는 형식이며, 상담 내용은 작성자 및 관리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비밀이 온전히 보장된다.

또한 진로·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NEO 성격검사, TCI 기질 및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Holland와 Strong 검사 등이 있는데 이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자가진단 페이지에서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대학생활, 대인관계, 이성관계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어 손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준다.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캠페인과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학우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밀고 있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학우들, 취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학우들에게 이곳에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서경대학교의 모든 정보가 모인 곳 - 학술정보관



▲ 사진 출처 : 2019년 서경대학교 홍보 브로슈어

서경대학교 유담관 6층부터 9층에 걸쳐 위치한 학술정보관은 학교에서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다. 입장 및 퇴장 시에는 서경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있는 출입용 QR코드를 게이트에 찍어야 한다. 층간 이동은 학술정보관 내에 별도로 위치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서경대 학생에게는 언제든지 열린 문이자, 편리한 혜택이다. 단 학술정보관 이용은 휴학 시에는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정문에서 조금 올라오면 보이는 분수대 옆 출입문은 유담관 6층으로 이어진다. 1164번 버스와 2115번 버스의 종점인 교내 중턱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면 유담관 9층으로 갈 수 있다. 학술정보관 6층에는 로비 안내데스크와 학술세미나실(소극장)이 자리하고 있다. 7층은 인문·예술과학 정보자료실과 학술정보지원과, 8층에는 사회·이공과학 정보자료실과 학술정보운영과가 운영된다.

6층과 7층에는 잡지, 참고자료,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서고가 빼곡하게 나열돼 있다. 오래된 전공 서적부터 다양한 종류의 사전이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까지 양질의 자료를 마음껏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6층과 7층의 벽면에는 멀티미디어 ZONE과 정보검색 ZONE이 마련돼 있어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검색하거나 영상물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의 과제를 하다가 참고할 자료나 서적이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나 컴퓨터를 사용해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학술정보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학술정보관은 교내 도서관 서비스와 동시에 학습실 서비스도 제공한다. 7층과 8층에는 그룹 스터디 룸과 프레젠테이션 룸이, 9층에는 세 곳의 자유 열람실과 ID-LAB실이 구축돼 있어 자유롭게 찾아와 이용하면 된다. 올해 새롭게 꾸며진 ID-LAB실은 학술정보관 게이트를 통과하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다. 자유 열람실의 경우 좌석 발급이 필요한데, 2019년부터 열람실 좌석 발급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며 서경대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열람실별 좌석 현황과 남은 이용 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니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는 열람실 예약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저널 및 전자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자료 및 도서 구입을 신청하거나 학위논문을 제출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학술DB' 카테고리에서는 교보문고 전자책이나 DBpia를 비롯해 다양한 서적, 논문, 저널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하여 'E-Learning' 서비스에서는 해커스 등 자격증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제공된다. 이처럼 학술정보관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대학생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서경대학교 재학생의 혜택이 모여 있는 학술정보관을 더욱 애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563호 기획면을 구상할 당시 우리 학교 해인관 건물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보면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생활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러나 대부분 강의실이 어떤 모습인지도 잘 모를 '코로나 학번' 학우들이 과연 우리 학교를 얼마나 알차게 이용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따라서 이

번 563호 기획 면은 우리 학교 오프라인 시설과 온라인 서비스를 소개해 학우들이 알차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 8월 2일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따라 명신전 비대면 강의 187개를 제외한 모든 강의는 대면으로 운영돼 캠퍼스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짠 시간표에 공강이 있

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번에 소개한 시설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기획 면에서 소개한 것 외에도 입사 지원하기 전 기업에 대한 정보와 연봉, 사내 분위기, 복지 등을 알 수 있는 '잡플래닛', 학교 인증 후 할인된 가격으로 전자제품,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는 삼성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

건강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 '서경스포렉스'

우리 학교 내에는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서경스포렉스'가 있다. 서경스포렉스는 'Sports'와 'Complex'의 합성어로 헬스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GX(Group Exercise), 필라테스, PT 등을 즐길 수 있는 운동 복합시설이다. 기존 찜질방이었던 시설을 재개발해 2016년 6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교내 우체국과 신한은행이 위치한 유담관 3층에 있다.

교내 시설인 만큼 우리 학교 학생과 교직원도 많이 이용하지만 인근 주민들도 서경대 예술교육원 운영 생활체육과정에 등록 후 수강생 자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교양강의로 개설된 '피트니스', '스쿼시' 등은 서경스포렉스에서 진행하고 있다.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장에는 머신, 프리웨이트 존, 러닝머신, 사이클이 비치돼 있어 자유롭게 유산소·무산소 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경스포렉스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4개의 스쿼시장은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도심지 내에서는 충고 등으로 국제 규격을 맞추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강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GX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한 상태다. 이외에도 PT, 필라테스는 옵션 개념으로 개인 강습이 가능하다.

서경스포렉스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저렴한 이용료와 개인 맞춤형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 및 임직원들은 기존 이용료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등록 후 인바디를 측정해 맞춤 지도가 이뤄진다. 인바디 측정은 월 1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특징에도 최근 서경스포렉스 이용률이 40% 정도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위험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됐고, 비대면 강의 전환으로 학생들도 많이 줄어든 탓이다. 심지어 지난 2020년 12월에는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래도 이번 2학기에는 대면 강의 확대로 캠퍼스에 학우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경스포렉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위치를 모르거나 정보가 없어 교내 어딘가에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는 학우들이 많다.

실제로 서경스포렉스에서 '피트니스', 'Model Body Fit 2' 강의를 진행하는 서경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과 류인수 교수는 "수강 신청했던 학생들이 서경스포렉스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경대 학생들에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운동도 하나의 일과로 만들어야 하며, 강의 수강하러 학교에 올 때 가까운 서경스포렉스에서 저렴하게 운동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류 교수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축제 때 '서경대 몸통 선발대회'를 진행해 부상으로 서경스포렉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홍보 계획을 학생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경스포렉스 홈페이지를 통해 1일 무료 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학기 학교생활에 건강을 더하고 싶다면 서경스포렉스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엘리베이터 이용이 까다로운 편인데, 9층 기준 카페 로열 열 유담관 입구 쪽 계단을 내려가 바로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 서경스포렉스 블로그

성큼 다가온 기후 위기, 노력해요 탄소중립

인류는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현재와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룩해냈다. 하지만 빠른 발전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가 망가져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뒤늦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느낀 세계는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는 탄소는 흡수, 제거를 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목표이자 의지라고 할 수 있다.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겠다는 영국을 필두로 많은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탄소를 사용했던 경제산업에서 전기차, 수소배터리 등의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비탄소 경제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업체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와 주도가 필요하다. 또한 그린슈머(친환경 소비), 친환경적 생활 등 시민 개개

인의 자발적인 참여도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현장르포 면에서는 세계 각지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의 정책을 알아보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리고 신문사 취재부 기자들이 직접 탄소를 줄이는 생활(탄소 발자국 줄이기 생활)을 실천해보고 느낀점을 담아봤다.

탄소 중립? 걱정없어요. 환경 선진국의 탄소 중립 정책



지구의 평균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덴마크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기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덴마크의 초대형 에너지 섬이 큰 화제다. 덴마크의 외해는 육지에서 약 80km 떨어진 바다 위에 12만제곱미터(약 3만6천평)의 에너지 섬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약 축구 경기장 18개를 합쳐 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로 2033년 완공 예정이다. 에너지 섬이 완공되면 풍력발전으로 약 3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바다 한가운데에 설치되는 에너지 섬은 덴마크가 탄소 중립에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외에도 덴마크 정부는 2050년까지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의 탐사, 추출 및 생산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덴마크는 최근 기후 위기 대응 평가에서 최상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영국 또한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은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8세기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 과거 영국은 1990년, 약 8억 6000만 톤이라는 방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 영국은 탄소 배출량을 약 4억 5500만톤(49.7%) 감소시켰다. 영국은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을까? 그들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과 국가 재생 에너지 실행계획을 제정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현재 영국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약 40~50%를 재생 에너지로 채우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은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를 사용하지 않는 석탄 발전소 퇴출 계획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영국은 휘발유 및 디젤차 판매 금지, 가스연료 난방 감축 등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친환경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영국. 환경을 위한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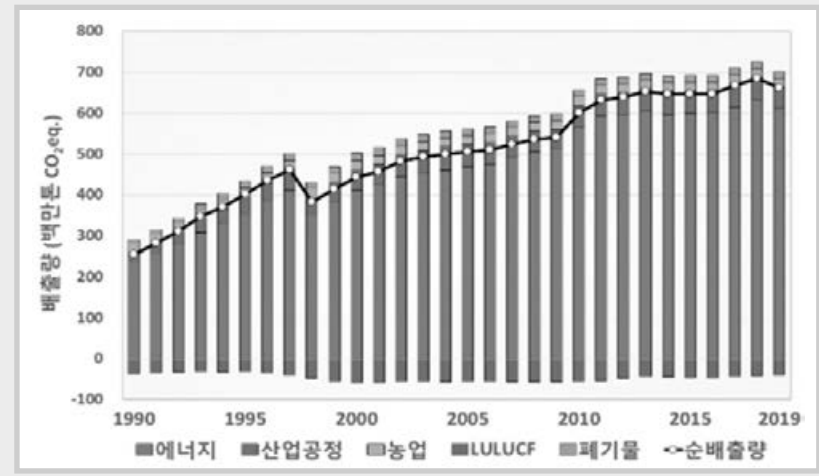
영국과 덴마크 이외에도 2021년 10월 기준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총 14개 국가는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법제화를 마쳤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보호' 개념이 아닌 '생존 문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한다.

탄소 중립 목표 최종안 '2050 탄소 중립 정책'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역시 가파른 지구온난화로 인한 평균온도상승을 미래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인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적으로 결정했다.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

는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안 가운데 A안은 화력발전소를 전면 중단하고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부 남기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CCUS) 등 흡수, 제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제시

했다. 또한 A안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로 공급하지만 B안은 내연기관차가 친환경 대체연료를 사용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6.6%에서 A안을 따를 경우 70.8%, B안을 따를 경우 60.9%로 대폭 높아진다. 또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이 A안에서는 21.5%, B안에서는 13.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으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10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로 조정했는데 이는 기존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탄소 줄이기, 나부터 실천하자

최근 전국에 내린 폭우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이상 영어나 소설 속 주제까 아닌 실제 우리의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요인이다. 그리고 '탄소발자국'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직 또는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상징화한 것이다. 지구의 온도와 해수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각종 자연재해가 우리 삶의 영역에 침투하기 직전인 현재 상황에서, 탄소발

자국 줄이기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소개해보겠다. 내 몸과 지구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 함께 실천해보자. 먼저 ▲다회용기 사용하기이다.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비닐봉지, 일회용 수저 등 일회용 용기는 환경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를 실천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 특히 카페처럼 음료를 판매하는 상권



에서 텀블러는 놓칠 수 없는 할인 쿠폰이나 마찬가지로 할인 혜택도 챙기고, 환경도 지켜보자. 다음은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 이용하기이다.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은 미세먼지와 오존의 오염의 치명타를 입힌다. 당장 도시에서 벗어

나 시골만 가도 공기의 질부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필수 기능인 '호흡'에 중요한 산소와 공기가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해 '발암 물질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등을 이용해야 한다.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인 실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이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을 뜻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다회용기 사용과 결이 비슷하다. 제로 웨이스트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화장품 발암 물질화' 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들여다보자. 스킨, 로션, 샴푸, 린스 등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지만 모두 사용하면 버리고 새로운 화장품을 산다. 여기서 제로 웨이스트는 관점을 바꿔 기존 용기에 내용물만 추가하는 '리필'의 개념에 주목했다. 따라서 최근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은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며 화장품을 모두 사용하고 용기를 가져오면 그 용기를 소

독해주고 내용물만 다시 담아주는 식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다. 쓰레기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비누 제품도 유행을 이끌고 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 유해 물질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부터 작은 실천을 한다면 분명 큰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해 본 후기

▶ 박세훈 기자
탄소 발자국 줄이기 생활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필자는 소비에 중점을 맞춰보았다. 배달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안 받기, 친환경 식품 사 먹기 등 여러 친환경 소비를 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은 최근 대중화된 무라벨 생수 구입이었다. 라벨이 없는 일명 '무라벨 생수'는 라벨을 떼는 것만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크게 줄여준다. 2L 생수병에 붙는 라벨 한 장당 무게는 0.8g 수준이다. 2020년 1월, 무라벨 생수인 '아이시스 에코'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에 총 1010만개를 판매했는데, 총 6.8t

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수병 라벨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 평균 가격이 1t당 145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롯데칠성음료는 생수병 라벨 제거만으로 약 1000만원의 비용을 줄인 것이다. 이처럼 무라벨 생수병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경과 이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제품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닐류인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수거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준다. 간편한 분리 배출 덕에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올리며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한다. '무라벨'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득이었고, 환경에 큰 도

움어 되는 기술로 더 많은 제품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함께 무라벨 제품 구입을 시작으로 친환경 소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 이예은 기자
필자가 실천한 탄소 중립 방안은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다. 비록 처음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텀블러 사용에 적응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음료의 온도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고, 3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오늘날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비단 며칠만이 아닌 앞으로 꾸준히 텀블러를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탄소 중립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아침 대중교통을 타고 등교를 하는 일도, 필자가 실천한 텀블러를 챙겨다니는 일도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날까지, 필자는 계속해서 환경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 홍지환 기자
본 기자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운동 중 가장 관심이 갔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했다. 특히 필자의 전공은 화장품과 관련이 많은 미용에 술학을 전공하고 있기에 화장품 용기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이어갔다. 먼저 비누를 사용했다. 어느새 우리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진 것 같다. 비누를 사용하면 종이 포장지 외에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누를 구입하여 사용했다.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감도 어느 제품에 밀리지 않았기에 비누 사용은 꾸준히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샴푸 리필스테이션을 방문했다. 화장품의 리필 1회는 400mL의 물과 전구를 18시간 켜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본인은 평소 사용하던 브랜드

의 리필스테이션을 방문해 샴푸를 리필했다. 직원분께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기를 꼼꼼히 살균 소독해주신 덕분에 걱정했던 위생 관점에서 도 만족했고,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굉장히 기분 좋은 쇼핑을 할 수 있었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 운동,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지구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한 나를 마주할 수 있었다.
▶ 김지수 기자
필자는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며 장을 볼 때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실행했다. 소비층들이 이것저것 구매할 때, 항상 장바구니가 없어서 일회용 비닐에

담아오곤 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예전부터 환경오염에 좋지 않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필자는 필자의 생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일회용 비닐 사용 자체하기를 골랐다. 실제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추가 비닐의 요금을 내지 않을 수 있고 비닐보다 훨씬 더 쓰기 수월했다. 장바구니의 디자인은 매우 다양한데, 모양이 유지되는 것부터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재질까지 구비돼 있다. 나는 천 장바구니로, 쉽게 구겨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가방을 선택했다. 이동할 때 전혀 부담되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상치 못한 쇼핑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주간칼럼



올해 여름방학에는 서경대신문 기자들의 취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3일(토)~14일(일) 1박 2일로 "2030평화통일 현장교육"을 진행하였다. "2030평화통일 현장교육"을 방문으로 잡은 것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통일인식조사, 보도를 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21년 10월 5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0년 통일인식조사"는 2020년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률은 24.7%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조사항목에 20대가 28.6%로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30대로

23.8%, 3위는 60대 이상으로 18.5%, 4위는 40대로 16.5%, 5위는 50대로 13%를 차지하였다.

2030세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초·중·고 670개교 73,8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와는 상반되었다. "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는 초·중·고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2019년 55.5% 대비 6.9% 상승되었다. 또한 통일이 된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응답이 2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19.2%는 '북한에 자주 여행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고, '세금을 더 내야할 것이다.', '취업

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가 11.9%,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가 7.4%, '대학입학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가 5.6%를 차지하였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2030세대들의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과 초·중·고생들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왜 다른 결과로 나타났을까? "2030평화통일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필자와 기자들은 입진각 DMZ, 도라산 전방대, 제3땅굴, 수도기계화사단 18전차부대 등을 탐방하였다. 특히 도라산전방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던 기자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데 갈 수 없는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카드뉴스로 기록되었다.

서경대신문 기자들이 기록한 카

드뉴스는 3가지로 (항상 두려움 가득한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 안감이 커질 것이다.'가 7.4%, '대학입학 경쟁력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가 5.6%를 차지하였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2030세대들의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과 초·중·고생들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왜 다른 결과로 나타났을까? "2030평화통일 현장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필자와 기자들은 입진각 DMZ, 도라산 전방대, 제3땅굴, 수도기계화사단 18전차부대 등을 탐방하였다. 특히 도라산전방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던 기자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데 갈 수 없는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카드뉴스로 기록되었다. <국내에서 만나는 다크투어리즘>에서는 <종략>6.25전쟁과 분단의 설움, 이

러한 아픔과 이들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다. 누군가의 피와 땀 위에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성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다크투어의 의의처럼 역사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마주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었다.

필자는 기자들이 기록한 카드뉴스를 통해, 2030세대와 초·중·고생들이 통일에 대해 조사 결과가 다른 것은 초·중·고생들은 공교육에서 지속해서 통일교육을 하지만, 공교육을 떠난 2030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답론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2030평화통일 현장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험형 평화통일 교육콘텐츠는 필자가 지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 기자는 눈 |

기꺼이 읽는 마음

영화가 시작되고 오프닝 건너뛰기 버튼이 반짝하고 나타나지만 바로 누를 순 없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이름을 다시 보기 위해 뒤로 가기 10초를 누른다. 결국 일시정지를 하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훑어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하면 꼭 여러 번을 거쳐가는 과정이다. 원래 상영 시간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러니 매번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영화를 본다.

자막 말고도 글자가 적혀 있는 곳이라면 주변까지 놓치지 않고 죽 읽어 나간다. 한국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게 영어로 적혀 있든 설령 이해하지 못하는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다. 계속 읽고 또 읽는다. 이렇게 모든 문자를 읽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활자 중독자. '활자 중독'을 사전에서는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읽어야 마음이 놓이는 심

리 상태"라고 정의한다. 필자는 읽으면 마음이 놓이기 보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편인데, 손에 쥐어지는 종이엔 인쇄된 글자라면 다 읽어야 한다.

두께가 얇은 책을 읽을 때조차 본문만 읽고 다음 책으로 바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일단 책 한 권을 읽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앞표지부터 시작해 책갈피와 중간에 삽입된 주석을 읽는다. 모조리. 더해서 발행인 발행정보가 인쇄된 페이지도 언젠, 어디서, 누가 책을 펴냈는지 살펴본다. 다시 책갈피, 뒤표지에 추천사, 그 밑에 적힌 바코드, ISBN, 책값까지 읽어야 하는 것이다. 한 자라도 놓치면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

서경대 신문사 수습기자가 지원하기 전, 처음으로 서경대 신문을 볼 때도 그랬다. 당장 최근 호부터 시작해 페이스북 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올라와 있는 신문의 글자를 모조리 읽었

더라.

그렇게 읽은 글자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다. 일부러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읽는 것도 아니다. 활자를 읽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읽는 행위와 그 순간 눈에 들어오는 활자에만 집중할 수 있다. 온갖 잡념이 사라진다. 오직 눈앞에서 자음, 모음, 기호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이런 활자 중독자의 입장에서 종이책이 전자책에 밀려서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우울하기 짝이 없다. 과연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도 언제나 내 결론은 동일하다. 전자책은 종이책을 대신할 수 없다.

같은 텍스트를 담고 있다고 해도 종이책을 읽는다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감각을 있는 대로 동원하는 일이다. 종이책의 냄새와 종이질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나는 소리로 다르다. 손때 묻은 정도도 책마다 달라서 어느 책 하나 똑같은 책이 없다.

더군다나 표지와 본문 구성을 어떻게 할지 기획하고, 어떤 글꼴을 사용하고 여백은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서 편집해 출판한 종이책은 출판사마다 그 스타일이 다르다. 종이책에는 고유한 매력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종이책을 읽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언제부터 읽었는지는 모르긴 몰라도 '만든 사람의 이름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자'에서 시작한 활자 중독은 눈에 보이는 제품의 성분 분석표를 읽기에 이르렀다. 클릭한 번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에서 무엇을 함유할지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진 지금,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의 반복은 조금은 따분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사를 쓰고 있는 와중에

도 여전히 쓰기보다는 읽고 싶다. 평생 쓰기와 읽기 중 하나만 선택하려면 단연코 읽기를 선택할 정도로 읽기가 훨씬 좋다. 항상 바라는 건 오롯이 읽기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돈을 왕창 벌어서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이 차레대로 정리된 책꽂이가 들어선 방에 또 아끼는 책들을 꺼져가 쌓아놓고 싶다. 그리고 책으로 둘러싸인 방에 자리를 잡아 누워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겠다.

또한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쓴 이름 다 읽을 테니 영화 엔딩 크레딧도 천천히 막을 내려준다면 좋겠다. 공연이 끝난 후 행해지는 커튼콜에서 온 배우가 다 나와 인사하는 것처럼. 기꺼이 읽으며 조명이 다시 밝아지는 순간까지 기다릴 용의가 있으니 말이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만/파/식/적

불편함, 그 너머의 것

이번 여름, 케이ابل에도 17.5%라는 성공적인 시청률과 함께 종영한 드라마가 있다. 바로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한 회차마다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유니버스 형식의 이 드라마는 다소 무거운 수 있는 소재도 받아들이기 쉽게 풀어내며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로, 매 회마다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해낸다. 이와 같은 드라마의 특성 외에도 간질간질하게 풀어어나가는 러브라인과 독특한 매력의 조연들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힐링 드라마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도 일부 시청자에게는 불쾌함을 주었다고 한다. 'PC가 과하다'는 이유였다. 여기서 'PC'란 Political Correctness의 약자로, 인종과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 소수 약자에 대한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다.

실제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레즈비언, 탈북민, 지적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재를 다뤘다. 특히 12화에서는 농협의 사내부부 대량해고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을 다루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샀다. 게다가 해당 회차에서는 여성 간의 연대와 사회적 통념에 담긴 성차별적 메시지를 다뤄 SNS에서는 앙가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PC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보다 과장된' 혹은, '실존하지 않는' 차별에 대한 언급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커뮤니티에서는 12화의 한 장면을 논란 삼았다. "여성도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게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지정한 것이었다. 극중 대형 로펌 회사인 '한바다'와 '태산'의 대표 두 명 모두가 여성인데다가, 주인공인 우영우 역시 여성인 세계관임에도 여성을 약자로 표현했다는 데서 온 불만이었다. 그들의 주장처럼 드라마의 세계관을 놓고 보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표현했다는 점이 '과한 PC'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30위 최하 (데일리한국)', '시사·보도프로그램 출연 남성 비율, 여성의 4배' (서울신문), '남녀 고용여건 격차 여전히..여성 임금, 남성의 70%' (KBS) 이는 '여성 노동자'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뜬 뉴스의 헤드라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설득적이지 못해 보인다.

사실 PC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PC는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한 도전이자 항의이므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그다지 아름답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만 애써 외면 중인 약자들에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자. 그들의 목소리에 심기가 불편해졌다면, 그들에게만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므로 그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사 설

尹 정부의 '반도체 백만 양병설', 교육 현장은 '난감'

교육부가 지난 7월 19일에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8월 22일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 전문 인재 100만 명을 양성, 반도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졌고, 최근 미국 주도로 '칩4 동맹'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으로,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중인 중국 경제를 위해 4국이 국가적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및 개발 능력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 보유국인 한국과 대만까지 4국이 협력한다는 구상이다.

칩4 동맹 합류는 고민 중이지만 반도체산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전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토대 마련을 위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나섰다.

실제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현재로서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다. 대만은 국가 주도로 매년 1만 명 신규 반도체 인재 확보 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신입생 선발까지 하는 등 반도체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게다가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세제 혜택까지 기업에 우대를 제공해 '반도체 굴기'를 이뤘다. 이 결과 지난 4월 IMF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약 20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중 1위는 반도체다. 게다가 2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여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뤄야 할 선행 과제가 많다. '국가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출산율은 이미 바닥이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즉 배울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가르칠 교수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고, 가르칠 때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제대로 갖춘 교육기관 또한 많지 않다.

한편 많은 전문가가 정부의 반도체 관련 첨단 학과 증원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이라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도 기업과 연계된 국내 반도체 계약학과는 연세대·성균관대·포스텍·KAIST(삼성전자)와 고려대·서강대·한양대(SK하이닉스)에만 운영·설치됐다. 경북대도 현재 유지 추진 중이지만, 이미 이전부터 삼성전자의 그늘에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지방대는 학생, 교수진 모두 기피하는 분위기다. 학생은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이들을 자녀로 둔 교수진도 또한 수도권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 제쳐두고 당장 실전에 투입할 인력만 양성하겠다는 윤 정부의 '백만 양병설'. 그 전에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지방대 채용 연계형 실험력을 확대하고, 전문학적 금액이 필요한 반도체 교육 장비 마련부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

| 기자는 눈 |

사랑이라는 이유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는가?

이 프로그램에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3~4인의 게스트가 출연한다. 그들은 매주 방방곡곡 전국에 있는 반려견과 보호자를 만난다. 그 후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 필자가 시청한 회차는 2020년 5월 방영된 울드 잉글리시 시프도그가 출연하는 편이다. 해당 반려견의 이름은 '끼'이며 2살의 암컷이다. 울드 잉글리시 시프도그(Old

English Sheepdog)는 영국에서 목양견을 목적으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며 튼튼하고 다부진 체구를 가진 견종이다. 크기는 53~60cm에 무게는 27~45kg까지 나가기 때문에 대형견으로 분류된다. 강형욱 훈련사는 "울드 잉글리시 시프도그는 갓난아기와 함께 지내도 될 정도로 순한 견종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끼'의 보호자는 끼가 사람을 향해 입질을 하고 심한 상처를 낼 정도로 사나운 개라고 소개했다. 보호자의 말처럼 끼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자마자 심한 공격성을 나타냈다.

강 훈련사가 끼의 공격성의 원인에 관해 묻자 보호자는 자신을 보호하고자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강 훈련사는 사회적 부족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에 대해견으로 분류된다. 제작자 보호자에게 하루 평균 집을 비우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 묻자 강 훈련사의 예측대로 평균 10~12시간 집을 비운다고 대답했다.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는 보호자에 출연진들과 강 훈련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끼는 처음부터 공격성이 넘치는

개가 아니었다. 보호자의 무지와 관심 결여가 지금의 끼를 만든 것이었다. 보호자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좋아했고, 대형견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끼를 입양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회차에서 끼는 보호자의 관심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우리가 갖춰야 할 건강한 반려인의 태도는 비운다고 대답했다. 대형견을 키우는 견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는 보호자에 출연진들과 강 훈련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끼는 처음부터 공격성이 넘치는

다 더욱 재밌고 글이 술술 써진다. 글쓰기라는 취미를 좋아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즐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마음가짐 덕분에 필자는 취미에서 시작한 일들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취미를 취미로 갖게 된 이유에 집중하고 본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자가 제안하는 '덕업일치'의 방법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스트레스만 받으며 일하기보다는 취미로 즐길 수 있기를, 좋아서 시작한 일을 계속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 수습의 눈 |

'덕업일치'는 정말 가능한 것인가

필자는 어릴 때 좋아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자의로 시간을 내어 즐기는 것들, 필자를 예로 들면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일들이었다. 세상에는 앞서 언급한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고,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른바 '덕업일치'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 가져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니, 평소 취미로 즐겨하던 좋아하는 일로 경제생활을 해야겠다는 생

각을 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취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으로서 취미를 일로 삼으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기도 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때 취미생활을 응용하는 직무를 맡았다. 취미를 즐길 때는 행복하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하니 취미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두 배로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좋아해오던 것들이 즐겁다고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다. 스스로가 이상한 건가 싶어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같은 답을 했다. 즐겁다고 시작한 일인데

생각만큼 즐겁지 않다는 것이다.

그 시절 우리는 왜 취미를 일로 삼게 되었을 때부터 취미를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됐을까. 이 기사를 읽는 독자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좋다고 시작한 일이 짐이 되어 버리는 느낌 말이다. 필자는 취미를 즐기지 못하게 되는 분기점은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취미(趣味)'를 표주박이대사전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행위를 '즐기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취미의 영역을 벗

어나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강제성이 주어지면 그것은 취미와 평행선에 놓인 단순한 일일 뿐, 즐길 거리가 되어주지는 못한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서도 '덕업일치'를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다. 정말 이를 수 없는 것일까, 강제성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을까, 계속해서 고민한 끝에 일할 때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이상황을 예로 들자면, '마감기한 안에 글을 써내야 하는' 압박 속에서 '글의 주제'라는 흥미로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실제로 흥미로운 주제의 기사를 쓸 때가 다른 기사를 쓸 때보

윤지예 수습기자

(jijesunny@skuniv.ac.kr)

이달의 책

지푸라기가 커다란 튜브가 될 때까지 - 튜브 손원평



만 남은 김성곤 안드레아는 강에 뛰어들려던 순간 매서운 칼바람이...

조금씩 허리가 퍼지며 무너진 그의 삶도 서서히 바로 서기 시작한다...

로 떠 오를 때까지 말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호기로운 시작에 반해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전하던 어느 날, 성곤은 차 사고에 휘말려 전복된 버스에서 사람들을 구하게 된다.

이영은 기자 (0eunee@skuniv.ac.kr)

이달의 전시회

성장하기 위해 알을 깨야 한다 - 데미안전



전시 『데미안전』은 책 『데미안』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전시 소개에 앞서 전시를 더 알차게 관람하려면, 헤르만 헤세의 책 『데미안』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망으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자는 전시를 보기 전에 책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미안전은 크게 4가지 챗터로 나뉘어져 있다. 챗터1에서는 그래픽티,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현대미술로 데미안의 세계를 표현한다.

포토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소설 『데미안』은 상실, 혼돈, 불안, 낙담, 분노, 슬픔과 좌절로 인해 피할 수 없이 어둡고 우울한 현실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한다.

박세훈 수습기자 (gns3978@skuniv.ac.kr)

이달의 영화

새로운 도전이 두려운 우리에게 - 씩2게더 (2022)



공연기획자 '버스터 문'은 뮤지컬의 성지 레드 쇼어 시티 공연 진출을 목표로 두고 있는 인물이다.

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버스터문의 단원들 또한 각자의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이전보다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버스터문 크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한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두렵다. 그러나 모든 도전은 언제나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이달의 음악

돌아보야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기에

올해는 유난히 힘들고 지치는 것 같다. 강추위와 폭염, 계속되는 사건·사고와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까지 기복이나 힘든 일상을 그만두지 않는 듯 하다.

♫ 〈FOREVER 1〉 - 소녀시대 (GIRLS' GENERATION)

"날 꼭 안아, 절대 놓치지마 가슴이 뛰잖아 다시는 아파하지 마 너의 마음을 우린 다 알아, 다 알아"

♫ 〈Red Sun〉 - 브레이브걸스 (Brave Girls)

"Look at me Now I'm so brave 훌린 듯 난 지금 꿈만 좇는데"

♫ 〈예뻐어〉 - DAY6 (데이식스)

"예뻐어 더 바랄게 없는듯한 느낌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이 곡은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의 희망 넘치는 노래이다. 그룹 재정비 이후 멤버들은 데뷔 초부터 역주행 이전까지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이 노래의 흔하다 흔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지만, 다른 노래들과 차별점이 있다. 바로 '상대방'을 예뻐했다고 칭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함께한 순간들'을 가리키고 있다.

홍지만 기자 (skwidhks9751@skuniv.ac.kr)

이달의 장소

갯벌을 개척해서 만든 첨단 신도시 - 송도



송도는 완전한 간척도시이다. 인천 남쪽의 갯벌을 11개의 공구로 나누어 수년간 개발하였다.

그런 송도의 사정은 뒤로하고, 관광 목적으로 송도를 찾은 사람들에게 우선 트리플 스트리트를 권한다.

도시의 시끄러움에 지쳤을 때는 잠시 밖으로 나가보자. 송도의 중간에는 롯데타워가 완공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1위의 높이를 자랑하던 포스코 타워가 있다.

포스코 타워를 중심으로 조성된 센트럴파크는 고밀도의 주거, 상업구역이 밀집한 송도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로서 조성되어 있다.

필자는 송도에 갈 때마다 늘 놀란다. 갈대밭이었던 공간이 고층 아파트가 되어있고, 이곳저곳 새로운 조형물들이 들어찬다.

류상곤 수습기자 (tg34567@skuniv.ac.kr)



이달의 스포츠

K리그의 U-22 규정, 꼭 필요할까?

K리그는 2021년부터 U-22 규정을 만들어 어린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U-22 규정이란 경기 선발 출전 명단에 1명 이상의 22세 이하 선수를 넣어야 하는 규정이다.

U-22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명확하게 갈린다. 장점은 확실하다.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기에 매우 좋은 것이다.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한 강원FC의 양현준 선수 역시 K리그의 U-22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이지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경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 연맹에 의도와 다르게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0~20분 만에 선수를 교체해 5인 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구단이다. 90분 경기 중 10분 만에 교체를 당한다면 선수 입장에서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교체로 투입된 선수가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 득점을 하기에 또 시간이 필요해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결승전에 출전하는 선수의 85%가 17세 이전에 1군 경기 출전경험이 있을 만큼 어린 선수의 출전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며 규정의 의도와 맞게 출전 경험을 주는 것은 좋으나 점차 보완이 필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을 유심히 볼 수 있고 감독이 이른 시기에 어떤 변화를 주며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최준서 기자 (cjunseo3214@naver.com)